



LG생활건강, 시각장애 학생에 안전교육

LG생활건강이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한국 소비자원과 협력해 시각장애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제품 안전 교육 및 물품 기부 행사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국립서울맹학교에서 열렸으며 생활용품 오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국립서울맹학교 학생들은 생활용품 용기에 표시된 QR코드와 점자 태그를 활용해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실습을 진행했다.

/LG생활건강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시니어 서비스 제휴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액티브 시니어 소셜 플랫폼 '시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재혼·결혼 정보 제휴 혜택을 선보인다. 18일 코웨이라이프솔루션(코라솔)에 따르면 시놀은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문화를 설계하는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업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커뮤니티와 여행을 비롯해 재혼·결혼정보 서비스 '시럽인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웨이라이프솔루션



푸드머스, 유아 지구식단 공모전 시상

푸드머스푸드머스가 한국식품조리과학회와 함께 유아용 친환경 식단 레시피 공모전을 열고 수상작 10개를 선정했다. 푸드머스푸드머스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열린 한국식품조리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2026 유아 지구식단 레시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푸드머스푸드머스



BNK부산은행, 가을철 지역 일손돕기 봉사

BNK부산은행이 일손이 부족한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17일 부산지역 7개 현장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을철 지역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16개 구·군별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부산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BNK부산은행

부음 ▲권택인씨 별세, 이종춘 씨 배우자상, 이근수·지역·미영 씨 모친상, 정애련 씨 시모상, 김중건·김민철(제너시스BBQ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빙모상=18일, 한도병원장례식장 1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장지 함백산 마도 선영. 031-8040-1444

▲유혜희씨 별세, 이원상(현대로템 RS연구소장·상무)씨 모친상=18일, 경기 광명시 중앙대학교광명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0일 오전 5시 3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경기 평택시 진위면 선영. 1811-7800
▲이금정씨 별세, 이응재(조선이공대학교 총장)씨 부친상=18일, 국민장례문화원 403호, 발인 20일 오전 8시20분. 062-606-4000

최태원 “20대로 돌아가면 창업해 인류 난제에 도전”

〈SK그룹 회장〉

EBS 출연해 ‘위대한 수업’서 강연 사회 난제 해결 위한 창업·도전 강조 졸업장보다 문제 해결 경험 중시 생각의 힘·공감·적응력 역량 제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창업을 하고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청년들에게 창업과 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사회가 직면한 난제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삼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메시지다.

18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2~16일 닷새간 방송된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시즌6에 출연해 ‘AI와 새로운 자본주의 그리고 청년’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국 기업인으로서는 처음 출연한 최 회장은 세 차례 강연과 두 차례 청년 문답을 통해 미래 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SK그룹

장 전략과 AI 시대의 일자리·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회장은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제가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무조건 창업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나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혹은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 부족과 탄소 배출, 식량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최 회장은 청년들에게 거창한 목표보다 주변의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최 회장은 “환경과 돌봄, 저출생, 금융 약자 등 사회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며 “가슴 속에 있는 걸 그냥 하라”고 강조했다. 작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축적하면 더 큰 사회적 과제

에 도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AI 시대의 일자리와 교육도 주요 화두로 다뤘다. 최 회장은 AI가 업무 시간을 단축하면 직업의 개념과 노동의 선택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교육 역시 지식 전달과 시험 중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과 실습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졸업장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생각하는 힘과 공감 능력, 적응력, 신체를 활용하는 능력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지능을 높여주는 도구이지만 지능이 곧 지혜는 아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이해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이 길러야 할 역량으로 ▲생각하는 힘 ▲공감 능력 ▲적응의 근육 ▲바디스킬 등 네 가지

ysw@metroseoul.co.kr



metro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6주기 추모행사 NH농협생명, 강원 인제서 농촌일손돕기

23일 수원 선영서 추도식·사장단 오찬 이재용 회장 경영 메시지 여부 주목 28일 용인서 추모 음악회 개최 예정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6주기를 앞두고 삼성그룹이 추도식과 추모 음악회를 잇달아 개최한다. 반도체 호환 속 실적 개선에도 주가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장단에 어떤 경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선대회장의 기일 이틀 전인 오는 23일 경기 수원 선영에서 6주기 추도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과 흉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유족, 삼성 사장단이 참석해 고인의 업적과 경영 철학을 기릴 것으로 보인다.

추도식 이후 이 회장과 사장단은 용인 삼성인력개발원 창조관으로 이동해 오찬을 할 전망이다. 창조관은 신입사원 교육장으로, 이 선대회장의 흉상이 설치된 곳이다. 이 회장은 2022년 추도식 당시 사장단에 “더 과감하고 도전적



1993년故이건희 선대회장 신경영 선언. /삼성전자

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위기 속 선제적 준비와 실행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오는 28일에는 용인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콘서트홀에서 추모 음악회를 개최한다.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공연이 예정됐으며,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와 삼성 사장단, 임직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선대회장은 1987년 삼성그룹 회장에 취임한 뒤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양성운 기자

이완진 부사장 등 임직원 25명 참여

NH농협생명은 지난 14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양배추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촌과 지속적인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일손돕기 활동에는 이완진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25명

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양배추 수확이 끝난 약 2000평 규모의 밭에서 농업용 비닐을 걷어내는 등 농경지 정리 작업을 함께 했다. NH농협생명 이완진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은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임직원들이 함께 농가를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is4187@

현대백, 에코백 재활용 ‘리백’ 캠페인

21~30일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진행

현대백화점이 고객이 기부한 에코백을 식품관에서 장바구니로 재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무역센터점 식품관에서 현대백화점 그룹 멤버십 H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리백(Re:Bag)’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리백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기부받아 선별과 세척, 재디자인 과정을 거쳐 제작한 장바구니다. 이를 위해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 3000여 장을 기부 받았고, 총 1500개의 장바구니를 제작했다. 365 리사이클은 현대백화점이 전



현대백화점이 고객 기부 에코백으로 제작한 ‘리백(Re:Bag)’ 이미지. /현대백화점그룹

국 점포를 활용해 불필요한 물품을 기부받아 재활용하는 고객 참여형 친환경 프로그램이다.

이번 리백 캠페인은 재활용한 장바구니가 실제 쇼핑 현장에서 순환 이용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교육사례 공유

장애인 교원이 교단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해법을 동료 교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청사 컨퍼런스룸에서 ‘장애인교원 교육활동 사례나눔’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서는 장애인 교원들은 수업과 학급 운영, 학교 업무를 하려 부

딛힌 난관과 풀어낸 방식,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이야기한다. 안내견과 함께 근무하는 상담교사의 사례, 교원학습공동체를 이끌며 동료 교사와 가까워진 경험, 장애·비장애 학생·교사가 함께 하는 통합체육교실 운영 사례 등을 소개한다.

/김수정 기자

/김수정 기자 kcrystal@